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해석의 새로운 시각

신선혜*

I. 머리말

II.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내용 분석

III. 王居仁 및 居隨知 설화의 채록시기와 『삼국유사』 편제의도

1. 후백제의 大耶城 함락과 왕거인 설화
2. 고려초 왕실의 불교계 재편과 거타지 설화

IV. 맺음말

요약문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진성여왕대의 혼란상을 보여 주는 왕거인, 거타지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례에 설화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국문학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진성여왕대의 사회상에 대한 보완자료로서 역사학적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왕거인과 거타지를 각각 왕경의 상층민, 지방의 하층민으로 규정하여 본 조목이 진성여왕대 왕실에 대한 대내외적 반발을 상징한다고 보거나, 특히 거타지의 경우 지방의 토착 신앙 혹은 변질된 불교에 대비된 정통 불교 세력을 상징한다고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시각들에는 왕거인이 大耶州의 隱者로 표현된 『삼국사기』의 기록과 거타지가 良貝의 무리로서 왕권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즉 왕거인 설화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진성여왕대 왕실의 불교성향(혹은 불교정책)에 대한 大耶州 사람들의 반발을, 거타지 설화는 앞선 반발들에 대한 무마와 僧政의 문란 등에 대한 俗權의 개입을 정당화하고자 부정한 승려가 왕의 군사로 설정된 속권에 의해 처단된다는 내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진성여왕대의 왕실과 불교계에 대한 반발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설화의 채록시기는 진성여왕대 이후로 생각되는데, 왕거인의 경우는 대야주의 후백제 함락 이후, 거타지의 경우는 왕건의 불교계 재편 시기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에 두 설화가 채록된 것은 신라 불교의 고려로의 연속성과 함께 고려초 불교계 재편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본 조목은 나말여초 시기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왕거인, 거타지, 진성여왕, 승려규제, 후백제, 삼국유사, 왕건

I. 머리말

진성여왕대(887~897)는 나말여초 전환기의 시작점으로 파악된다. 잦은 천재지변과 농민반란의 발발로 935년 고려에 귀부하기까지 신라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이후 고려)에 비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혼란상은 『삼국사기』 진성왕조 전반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¹⁾ 895년, 즉 진성여왕 9년에 새겨진 해인사 탑지나²⁾ 선사비문 등 당대의 기록에서 발견된다.³⁾ 특히 후자의 자료들은 본고에서 다루려는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이하 거타지조)와 함께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의 불교계 양상뿐만 아니라 나말여초 불교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거타지조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설화학의 범주에서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국문학적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거타지 설화는 인신공양 유형의 『심청전』 배경설화로서 설화의 소설화 과정으로 이해되었고, 영웅설화의 유형으로 이후 작제건 설화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용설화와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⁴⁾ 다만 이들은 거

1)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2) 해인사 길상탑에서 발견된 4개 6면의 탑지로, 「海印寺妙吉祥塔記」, 「寧二卯年相月雲陽臺吉祥塔記」, 「海印寺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 「五臺山寺吉祥塔詞除序」, 「哭緇軍」, 「寧二旃蒙年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際記」를 말한다. 이 중 「海印寺妙吉祥塔記」, 「五臺山寺吉祥塔詞除序」, 「哭緇軍」 등에 당대 신라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상과 해인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群盜의 공격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흥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에서는 온 나라에 草寇가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고, 「대안사광자대사비」에서는 산적들이 절에 들어와 재물을 약탈하였다고 하며, 「지장선원낭원대사오진탑비」에서는 여러 차례 草賊들의 洞口 차단을 힐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 류우선(1981); 장덕순(1984); 신동익(1984); 최운식(1985); 신련우(1998); 송화섭(2007) 등.

타지조의 내용 중 거타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조목 전체에 대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조목 전체를 대상으로 왕거인과 거타지 설화의 상관관계, 그리고 진성여왕대의 사회상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는데, 본 조목이 당대 왕경과 지방의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거나 상충민과 하충민을 대변하는 인물로 왕거인과 거타지가 설정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⁵⁾ 이와 함께 본 조목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⁶⁾ 이는 두 설화에 모두 다라니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당시 밀교다라니의 보급과 관련하여 이해하거나,⁷⁾ 곡도로 설정된 섬의 주술적 불교가 거타지로 설정된 정통 불교로 퇴치, 이식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⁸⁾

이러한 연구들은 진성여왕의 친불교적 성격과 당대 혼란한 사회상을 전제하고, 『삼국유사』에 두 설화를 함께 기록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는 추락하는 왕경의 분열상과 활발하고 진취적인 지방세력의 양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교사적으로도 토착신앙과 결합된 지방 불교와 정통의 왕경 불교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왕거인을 왕경인, 거타지를 지방인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두 인물의 불교적 입장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거타지 설화는 敎權과 俗權의 관계, 즉 교단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단의 자율성은 승려가 신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불교계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를 통해 방증될 수 있다. 승려들이 天文·卜筮·占術 등을 이용하였던 점 외에도 사원이 가진 경제력과 인력을 감

5) 박철완(1988); 전기웅(2010); 박유미(2012).

6) 『삼국유사』 기이편이 다른 편목과 같이 불교적 사유에 기반한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담긴 편목이라는 점에서(김영태(1974); 김영태(1987); 김상현(1997); 박미선(2016)) 본 조목에 대한 불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7) 남희숙(2002); 김연민(2017).

8) 여성구(2016).

안한다면 승려 및 사원은 왕실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교단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승려들을 우대하면서도 율령체제 속에 승단을 포함시켜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⁹⁾ 그러나 국가가 불교계의 자정능력을 신뢰하는 한, 승려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과 규제는 교단 내 계율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신라말을 배경으로 하는 본 조목에서 용신과 승려의 갈등과 승려의 부정적 행위를 거타지로 대표되는 속권이 해결하는 양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신라 중고기와 중대에 걸쳐 교단의 자율성과 국가에 의한 통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신라말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교단의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었는가의 문제는 결론짓기 쉽지 않다. 국가 통제력의 약화가 곧 교단의 자율성을 의미하는가라는 관점과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타지의 사례와 같이 사문이 부정적 행동을 보일 때 속인이 승려를 죽이는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교권에 대한 속권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거타지조의 왕거인 및 거타지 설화를 각각 분석하고 그것이 채록된 시기와 『삼국유사』에 편제한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왕거인의 경우 『삼국사기』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발견되므로 두 기록의 출입을 살펴 왕거인의 所在와 행보에 근거하여 왕실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다라니를 이용하여 시국을 비판한 점은 불교와의 관련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거타지 설화에서는 부정한 사문에 대한 왕실의 규제방식을 중고기, 중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라말 왕권에 의한 교권 규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말여초 불교계의 국가와 교단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계기가

9) 김영미(2002), 1-2.

될 것이다.

한편 왕거인과 거타지 설화는 진성여왕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설화의 채록시기 역시 당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왕거인의 경우 反왕실적 사건이라는 성격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설화의 배경인 대야주는 신라 하대, 해인사라는 대표적 왕실사찰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거타지 설화 역시 그 배경인 곡도가 신라 왕경과 떨어진 궁벽한 지역인 만큼 지방의 사정이 채록되고 부각된 시기는 후대로 판단된다. 이에 나말여초 두 배경공간의 정세를 살펴 왕거인 및 거타지 설화의 채록시기와 함께 『삼국유사』에 편제된 의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타지조 해석의 그간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내용 분석

거타지조에는 두 개의 설화가 들어있다. 『삼국유사』에서 한 조목에 두 사례 이상을 실은 경우는 대체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복수의 자료를 인용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기이편의 조목들에서는 각 왕대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다수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¹⁰⁾ 거타지조의 바로 앞 조목인 「처용랑망해사」조 역시 현강왕의 처용 및 남산신과의 만남이라는 두 소재를 담고 있다.¹¹⁾ 거타지조에서는 진성여왕대의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왕거인과 거타지 사례를 발굴하여 입전한 것으로, 이렇듯 특정 인물을 조목명으로 내세운 경우, 그들의 활동에서는 두 가지

10) 『삼국유사』 기이편이 초반에는 국가 중심으로, 후반에는 국왕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김주성(2010), 505-520)

11) 『삼국유사』 권2 기이2 처용랑망해사.

공통점이 찾아진다. 바로 그들이 왕의 近侍的 인물이라는 점과 불교와의 관련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일연의 시대인식과 정권에 대한 태도가 『삼국유사』의 편목 중에서도 특히 기이편에 다수 반영되어 각 왕대별 조목에 왕의 신성성과 권위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기술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왕의 정책에 동조하는 近侍集團의 중요성 역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중앙에서 이미 활동하던 왕족 및 귀족집단뿐만 아니라 귀신이나 용 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변방의 혹은 異類의 인물들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을 포용하는 방편으로 불교가 이용되었던 점은 일연과 충렬왕의 관계와도 유사하다고 하겠다.¹²⁾ 다만 본 조목은 다른 조목과는 달리 제목에 거타지만이 노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마도 두 설화 중 거타지 설화에 『삼국유사』 찬자의 중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왕거인 설화는 내용 상 네 단계로 구분된다.¹³⁾ 즉 (a) 진성여왕대 魏弘을 비롯한 왕실의 정사 농단과 사회 혼란상, (b) 國人의 다라니 투척과 왕거인의 투옥, (c) 왕거인의 作詩와 방면, (d) 시와 다라니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b)와 (c)의 내용은 『삼국사기』에도 보여 두 사료 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b)

이때에 누가 時政을 비방하는 문자를 나열하여 큰 길에 게시한 일이 있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수색케 하여 보았으나 잡지 못하였다.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뜻을 잃은 文人の 소행일 것

12) 신선혜(2017a), 153-154.

13) 왕거인 사례의 경우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설화적 요소보다 일반적인 역사의 기술에 가깝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해당하므로 “왕거인 사건”으로 특칭하기도 하지만(전기웅(2010), 221-222), 하늘의 조화 등 설화적 요소가 확인되므로 거타지 사례와 함께 설화로 통칭하고자 한다.

인데, 아마도 大耶州의 隱者인 巨仁이 아닐까 하였다. 왕이 명하여 巨仁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장차 형을 가하러 하였다.(『삼국사기』)

國人이 근심하여 陀羅尼의 隱語를 지어 길 위에 던졌다. 왕과 권신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王居仁이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으랴 하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삼국유사』)

(c)

巨仁은 분하고 원통하여 獄壁 위에 글을 써 말하기를, “于公이 통곡하여 3년 동안 날이 가물었고 鄒衍이 슬픔을 품어 5월에도 서리가 내렸다. 지금 이내 근심도 예와 다름이 없는데 皇天은 아무말도 없이 창창할 뿐이로구나” 하였다. 그 날 저녁에 홀연히 구름이 끼고 천둥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니, 왕은 두려워하여 그를 석방시켜 돌려보냈다.(『삼국사기』)

居仁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서 면하게 하였다. 그 시에 「燕丹의 피어린 눈물, 무지개가 해를 뚫고, 鄒衍의 머금은 슬픔, 여름에도 서리를 내린다, 지금 이내 시름, 그와 같도다, 아. 皇天아 어찌해 아무 표시도 없는가」라 하였고, 陀羅尼에는 「南無亡國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于于三阿干 梟伊娑婆訶」라 하였다.(『삼국유사』)¹⁴⁾

두 사료 간 내용의 대체적인 흐름은 동일하지만, 왕거인 설화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부분인 (b)에서 두 사료 간 차이점이 발견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비방의 주체	無名子	國人
비방의 수단	欺謗時政	陀羅尼隱語
왕거인의 所在	文人不得志者, 大耶州隱者	내용없음

위의 세 부분이 두 사료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왕거인을 유훈적 지식인과 같이 표현한 반

14) 이상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2년; 『삼국유사』 권2 기이2 진성여대왕거타지.

면 『삼국유사』에서는 그가 쓴 “다라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면 두 사료 간 사상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 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삼국사기』에 비중을 두어 왕거인을 당시 저명한 6두품의 학자로, 정치세력에 반감을 갖고 비판하다가 대야주에 은둔하고 있는 인물로 봄으로써 본 조목을 사상적 측면보다는 왕의 측근정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¹⁵⁾

실상 두 기록의 차이는 전거자료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¹⁶⁾ 『삼국유사』의 경우 자료 간 상이점이 발견될 때에는 두 자료 모두 전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원광서학」조에서 “해동승전의 찬자가 그 잘못을 이어 기록하여 당시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 글자도 가감없이 두 傳의 글을 상세히 기재하여 둔다”라고 한 것이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¹⁷⁾ 이렇게 볼 때 일연이 『삼국사기』 혹은 『삼국유사』의 전거자료와 『삼국유사』의 전거자료를 모두 보았음에도 후자의 것만 인용하였다는 것은 두 자료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보완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였기에 『삼국사기』의 내용은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타지조는 『삼국사기』에 밝혀지지 않은 왕거인 설화의 불교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왕거인은 시정에 대한 비판의 방편으로 다라니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그 발신 장소는 대야주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왕거인의 지역 배경이 대야주로 특칭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야주는 신라 진흥왕대 설치된 이래 주로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부각된 공간이다. 이후 애장왕대 해인사가 건립되면서 왕실사찰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된 곳이기도 하다.¹⁸⁾ 해인사는 특히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원

15) 전기웅(2010), 202-203, 224; 곽승훈(2005), 160.

16) 왕거인을 居仁과 巨仁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왕거인의 詩句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여성구(2016), 74)

17)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因辨於此 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 신선혜(2017b), 220-221.

찰로 삼았던 사찰로,¹⁹⁾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까지 28명의 대덕이 배출될 만큼²⁰⁾ 당대 왕실과 불교계를 잇는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현재 해인사 원당암에는 창건 당시의 신라 석조유물이 전해 오는데, 보광전의 축대, 다층청석탑, 석등, 배례석 등이 모두 신라 왕실의 배려로 원당으로서 조성된 것이라는 점도²¹⁾ 당대 해인사와 왕실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에 의해 왕실에 대한 반발이 행해진 것은 진성여왕대의 혼란상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왕거인이 文人이었음에도 다라니를 이용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은 당시 진성여왕의 불교적 행보에 대한 반발을 대변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진성여왕은 연등회, 백좌설법과 같은 불교행사를 주관하는 등 불교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비호로 당시 불교계는 귀족과 결탁하여 재산을 늘리는 등 민중과 괴리된 양상을 보였다. 당시 해인사가 草賊의 대상이 되었던 점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²²⁾ 진성여왕의 이러한 불교적 행보가 결국 국정의 문란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한 國人들은 다라니 투척이

1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3년. 이와 함께 최치원의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東文選』 卷64 記)에 따르면, 김언승의 어머니이자 애장왕의 할머니인 聖穆太后가 이 불사를 적극 후원하였다고 하고, 『가야산해인사고적』에는 애장왕이 해인사에 2,500결의 토지를 기진했다고도 하여 해인사가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 창건되고, 왕실사찰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진성여왕은 즉위 전, 北宮長公主로 호칭되었고 이때부터 『화엄경』 사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시하는 등 다수의 불교적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현강왕 4년(878)부터는 해인사에 토지 등을 기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乾符戊戌(878)부터 北宮海印齋라고 표기된 田券이 있었기 때문이다.(김상현(2006), 244)

20) 최치원이 효공왕 4년(900)에 쓴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東文選』 卷64 記)에 의하면 “나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28대德(四七德)이나 되었다”고 한다.

21) 장충식 외(1993), 98-104.

22) 각주 2) 참고.

라는 방식으로 반발한 것이다.²³⁾

이는 9세기말부터 10세기초 해인사에 은거하였던 최치원의 행보와 대비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해인사에 은거하면서 母兄인 승려 賢俊 및 定玄師와 교류하였는데,²⁴⁾ 현준이 의상의 인손이며 『화엄경』 사경을 완성한 승려라는 점에서 최치원의 화엄과의 인연, 그리고 화엄의 중심사찰로서의 해인사의 위상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진성여왕의 명으로 「정주사낭혜화상탑비」 등 다수의 불교사적을 정리하였던 점은 왕실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²⁵⁾

반면 왕거인은 진성여왕의 불교적 공간인 대야주에서 다라니를 이용하여 왕실에 반발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 당대 왕실, 그리고 왕실과 결탁한 불교세력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왕경인으로서가 아닌, 진성여왕대 지방민들의 왕실에 대한 반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왕거인 설화와 “이 왕 때에(此王代)”로 연결되어 있는 거타지 설화의 내용은²⁶⁾ (a) 거타지의 鵠島 체재, (b) 거타지의 沙彌와 龍의 갈등 해결, (c) 거타지의 입당과 귀국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3) 거타지조에는 다라니 배포의 주체가 國人으로 되어 있지만, 왕실에서 그 주체를 왕거인으로 규정한 데에서 國인과 왕거인은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國인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며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경인으로 규정하여 왕거인 역시 왕경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기웅(1996), 42-46), 그의 출신은 왕경일 수 있으나 대야주가 특칭된 것으로 보아 대야주의 민심을 대변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24) 『삼국사기』 권46 열전6 최치원. 대체로 최치원이 해인사에 은둔한 때를 898년으로 보고 있다. (『동사강목』 5下 효공왕 2년 11월; 김복순(1983), 166; 장일규(2004), 77 등)

25) 최치원의 마지막 글로 추정되는 908년 작성된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등에 따르면 그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은둔생활을 하였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신라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오(2016), 336)

26) 『삼국유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기술할 때 본 조목에서 사용한 “此王代”뿐만 아니라 “初”, “時”, “時有”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此王代”는 본 조목과 기이1 「제이남해왕」조에 보인다. (여성구(2015), 71)

(a)

이 왕 때에 阿滄 良貝는 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唐에 奉使하러 할 때 (후)백제의 해적이 津島에서 가로막는다 함을 듣고 弓士 50인을 뽑아서 따르게 하였다. 배가 鶴島[鄉言에는 骨大島라 한다]에 이르렀을 때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 10여일 동안 묵게 되었다. 공이 근심하여 사람을 시켜 점을 치니, 말하기를 섬에 신이한 연못이 있으니 제사지내면 좋겠다 하였다. … 군사 居陋知란 자의 이름이 물에 잠기었으므로 이에 그 사람을 머물게 하니 순풍이 갑자기 일어나 배는 지체없이 달아났다.

(b)

居陋는 수심에 쌓여 섬 위에서 서 있었다니 홀연히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 말하되 나는 西海若인데 해가 뜰 때에는 매양 한 중이 하늘에서 내려와 陋羅尼를 외우면서 세 번 이 못을 돈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식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된다. 중은 내 자식의 간장을 다 빼어 먹고 오직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겨 놓았다. 내일 아침에도 또 반드시 올 것이니, 청컨대 그대는 활로 쏘아달라고 하였다. 거타가 말하길, 활쏘는 것은 내가 잘 하는 바이니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였다. 노인이 감사를 표하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거타는 숨어서 기다렸다. 이튿날 동쪽에서 해가 뜨자, 과연 사미가 와서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며 늪은 용의 간을 취하러 하였다. 그때 거타가 활을 쏘아 맞히니, 사미가 곧 늪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었다.

(c)

이에 노인이 나와 감사하여 말하기를 공의 은혜로 나의 생명을 건 하였으니, 나의 딸로 아내를 삼아달라고 하였다. … 고국에 돌아오자 거타는 꽃가지를 내어 여자로 변하게 하여 함께 살았다.²⁷⁾

거타지 설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와 (b) 부분으로, 먼저 (a)에서는 거타지의 출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거타지는 “知”가 왕족, 명장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웅화된 인물, 나아가 견훤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 이래,²⁸⁾ 거

27) 이상 『삼국유사』 권2 기이2 진성여대왕거타지.

타가 康州(진주)의 옛 명칭이라는 점에서 강주지역의 유력한 인물로 보기도 하였다.²⁹⁾ 이러한 견해들은 거타지를 유력자로 본 반면, 그가 군사로 표현된 만큼 하층민으로 보고 거타지 설화는 그를 중심으로 신과 왕실세력, 그리고 國人들까지 모두의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³⁰⁾ 그런데 거타지의 출자와 관련해서는 그가 良貝의 무리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양패는 阿滄이며 왕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실상 진성여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에 보내는 사신들을 자주 왕자로 칭하였음에 근거한 외교적 목적을 위한 칭호라고 볼 수 있다.³¹⁾ 즉 양패의 무리는 친왕실적 성격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후에 보이는 거타지의 행동은 왕실의 의도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b)에서 서해용을 도와 부정한 사미를 죽이는 행동 역시 왕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³²⁾ 俗權에 의한 敎權 규제의 구체적인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신라말 불교 통제의 일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沙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규제의 사례는 신라 중고기부터 찾을 수 있다.

東京安逸戶長 貞孝의 집에 있던 古本殊異傳에는 圓光法師의 傳이 실려있는데, 법사의 俗姓은 薛氏로, 王京人이었다. 처음에 중이 되어 불법

28) 박철완(1988), 256-259.

29) 전기웅(2010), 233-234.

30) 박유미(2012), 141-142.

31) 전기웅(2010), 235-236; 권영오(2004), 44-45. 반면 본 조목을 근거로 진성여왕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추론하기도 한다. 나아가 아들이 있음에도 조카인 嶺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조인성(2002), 99-100; 김창겸(2003))

32) 사문을 승려가 아닌 사미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사미의 수행 단계가 정통 불교를 의미하는 비구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여성구(2016), 105-106 각주85) 그러나 이들도 역시 교단의 범주에 속하므로 교권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생각된다.

을 배우던 중, 나이 30세에 한가한 곳에서 수도하려 하여 三岐山에 홀로 살게 되었다. 그 후 4년에 한 중이 와서 그 근처에 따로 절을 짓고 있는 지 2년이 되었는데, 그가 強猛하여 呪術을 좋아 닦았다. 법사가 밤에 홀로 앉아 경을 외고 있을 때 홀연히 한 귀신이 그 이름을 부르며 “잘도 한다, 잘도 한다, 그대의 수행이여. 대개 수행하는 자는 많지만 법과 같이 하는 자는 드물다. 지금 이웃에 있는 중을 보니 곧장 呪術을 닦으나 얻는 바는 없을 것이고 그 큰 소리가 남의 靜念을 방해한다. 또 그 처소가 나의 다니는 길을 방해하므로, 지나다닐 때마다 매우 미운 마음이 날 정도이다. 법사는 나를 위하여 그에게 말하여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하라. 만일 오래 머무른다면 아마 내가 죄업을 저지르지도 모른다”고 하였다.³³⁾

善德王 德曼이 병환이 든지 오래 되었다. 興輪寺僧 法揚이 불리어 병환을 보게 하였는데 오래도록 효과가 없었다. 때에 密本法師의 德行이 국내에 알려졌으므로 좌우의 신하가 바꾸기를 청하였다. 왕이 (그를) 궁중에 불러들이니 그는 宸仗 밖에서 약사경을 읽었다. 경을 다 읽자마자 가졌던 六環杖이 침실 안에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찢러 뜯아래에 거꾸로 내던지매 왕의 병환이 나았다. 때에 密本의 머리 위에 오색의 성스러운 빛이 비치어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³⁴⁾

먼저 원광은 신라 중고기를 대표하는 승려로 위의 사료에 따르면 토착신앙의 대표 신격인 산신과 주술승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을 원광, 즉 교단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주술승이 ‘얻는 것 없이 요란하게 주술을 외우는 존재’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如法하게 수행하는 존재’로 표현된 원광과는 다르게 당대에 주술승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음도 역시 확인되는데, 불교계의 자정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규제를 원광에게 맡겼던 것이다. 다음의 밑본의 사례에서 法揚은 부정한 기운을 가진 여우와 함께 표현됨으로써 당대 교단과 왕실의 관계를 해하는 인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부정한 사문에 대한 해결을 역시 밑본에게 맡기고 있다.

33) 『삼국유사』 권4 의해5 圓光西學.

34) 『삼국유사』 권5 신주6 密本摧邪.

그러나 거타지의 사례는 이와 다르다. 특히 용신 역시 토착신앙의 대표 신격이라는 측면에서 원광의 사례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중고기에는 교권, 하대에는 속권이라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라에서 속권, 즉 왕권에 의한 교권의 규제 및 통제 양상은 문무왕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두드러진다. 대체로 불교계 통제의 수단으로 여겨진 승관 설치의 경우 신라에서는 중국 불교계와는 달리 弘法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파악되므로, 속권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는 成典의 설치시기인 중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³⁵⁾ 성전은 속관만으로 구성된 불교관계기구로, 문무왕대 사천왕사의 건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난다.³⁶⁾ 특히 고위직의 속관으로 구성되고, 경주의 大刹에 설치하였기에 전 불교계 통제의 주축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문무왕 4년(664)에 사찰로의 재화, 전지를 시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것도³⁷⁾ 속권에 의한 교권의 직접적 규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복위 이래의 僧制 등을 계승하여 정관 11년(637) 道僧格이 제정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大寶令을 제정하는 일환으로 대보 원년(701)에 僧尼令을 제정하였다.³⁸⁾ 이는 속세를 떠난 승려들도 율령체계 속에 포섭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신라에서 승려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令이나 格을 제정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중국의 불교계 통제책을 참고로 신라 역시 속권에 의한 교권의 통제를 시도하였다고 생각된다. 『삼국유사』 「백률사」조에 보이는 효소왕대 백률사 주지의 봉성사 이주 사례가 그것을 방증한다.³⁹⁾ 즉 봉성사는 중대 이후 성전이 설치된 사원인

35) 신선혜(2005), 44-47.

36)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3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38) 『續日本記』 권2 文武天皇 大寶元年 6월 壬寅朔 “令正七位下道君首名 說僧尼令于大安寺”.

39) 『삼국유사』 권3 탐상4 栢栗寺.

만큼 주지의 봉성사 이주는 사찰과 승려에 대한 우대임과⁴⁰⁾ 동시에 속권에 의한 통제의 실례로 해석될 수 있다. 아쉽게도 중대 이후 승려의 비위에 대한 규제의 명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지만, 거타지의 사례가 신라말 속권에 의한 승려 처단, 즉 행동 규제가 가능하였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듯 왕거인 설화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진성여왕대 왕실의 불교성향(혹은 불교정책)에 대한 반발을, 거타지 설화는 앞선 반발들에 대한 무마와 승정 문란 등에 대한 속권의 개입을 정당화하고자 한 의도가 담긴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Ⅲ. 王居仁 및 居隨知 설화의 채록시기와 『삼국유사』 편제의 의도

1. 후백제의 大耶城 함락과 왕거인 설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왕거인 설화는 왕실과 해인사가 있는 대야주 불교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해인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러한 설화가 채록, 전승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 사례의 채록 시기를 궁구해보기 위해 신라말 해인사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성여왕대 이후 대야성 지역은 견훤의 거듭된 공격을 받았다.

(효공왕 5년) 8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대야성을 치러다가 항목하지 아니하므로 군사를 錦城 남쪽으로 옮겨 연변의 부락을 약탈하여 갔다.⁴¹⁾

40) 辛鍾遠(1982), 83-86.

(신덕왕 5년) 견훤이 대야성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였다.⁴²⁾

(경명왕 4년) 10월에 후백제주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명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군사를 진례성에 진군하니, 왕은 아찬 김륵을 보내어 (고려) 태조에게 원조를 구하였다. 태조가 그의 部將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구원하게 하니 견훤이 이를 듣고 돌아갔다.⁴³⁾

위의 일련의 사료에 따르면 경명왕 4년(920)까지 대야성은 대외적으로 신라의 영향력 하에서 견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는 897년 가을에 해인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점이나 898년 이후 최치원이 은거지로 해인사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진성여왕대 이후에도 이 지역과 해인사가 여전히 신라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왕거인의 다라니 투척 사건이 부각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후 이 지역을 함락한 후백제의 입장에서 반신라적 기류들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견훤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호응했다”는 기록은⁴⁶⁾ 그만큼 후백제가 이 지역을 공략하기 힘들었던 것을 반증하며, 함락 후 왕거인 사건이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시국 비판의 수단이 다라니라는 점 역시 왕거인 설화의 채록 시기가 대야주에 대한 신라의 통치체제가 붕괴된 이후라는 점을 추측하게 해준다. 7세기 후반 혜통의 활약으로 다라니 신앙이 신라 사회에 파급되고 8세기 초반 밀교의 다양한 다라니 경전들이 수용된 후 9세기 신라에는 다라니 신앙이 확산되어 있었다.⁴⁷⁾

4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5년.

4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신덕왕 5년.

4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44) 권영오(2016), 332-333.

45) 『고려사』에 따르면 대야성은 927년 7월에 고려가 대야성을 격파하였지만, 928년 8월 후백제는 대야성을 다시 확보하였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후백제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었다.(권영오(2016), 344)

4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乾寧 2년 을묘년에 百城山寺 앞에 있는 臺의 吉祥塔 안에 넣은 法寶의 기록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 법화경 1부. 유마경 1부.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 … 眞言集錄 2권. … 유희와 塑造의 소탑 99기, 그리고 또 77기 (각 탑마다 진언을 넣음) …48)

그 해(효공왕 12, 908) 첫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 公山桐寺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를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緣善大德, 興輪寺 融善呪師 등의 고승들이 다 모여 법회를 장엄토록 하였다.⁴⁹⁾

楚의 봉황과 같거나 周의 옥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 자도 있었다. 혹은 懺誦으로 추천되거나 摠持로 채용되기도 하고, 혹은 귀족 신분으로 천거되거나 굳은 절조[古節]를 인정받기도 하였다.⁵⁰⁾

위의 사료들은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 다라니 신앙의 확산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성산사는 해인사 부근의 사찰로 보이는 데, 진성여왕 9년(895)에 이곳의 탑 안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 『眞言集錄』 등을 봉안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신라 사회에 여러 종류의 다라니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⁵¹⁾ 이러한 다라니 신앙이 해인사 주변 지역에

47) 김두진(2008), 176-182; 김수연(2012), 28; 김연민(2017), 114-115. 다만 이때의 다라니 신앙은 밀교의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토착 신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즉 가증되는 사회 혼란 속에서 현실부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가 참위적인 신앙이 등장하였고, 다라니 신앙의 주술적인 성격이 민간의 참위신앙으로 변질된 것으로 파악한다.(김연민(2017), 114-115) 이어지는 거타지 설화의 다라니 사례 역시 용신앙 등 토착신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시기 밀교의 변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48) 『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際記』, “寧二旃蒙年百城山寺前臺 吉祥塔中納 法際記 無垢淨大陀羅尼經 一卷 法花經一部 淨名經 一部,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 … 眞言集錄 二卷 … 瑠璃泥小塔 九十九 又七十七 每塔納眞言…”.

49) 최치원,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東文選』 卷64 記).

50) 최치원,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東文選』 卷64 記).

51) 김수연(2012), 26-27.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효공왕대에는 持念緣善大德과 融善呪師 등 밀교 승려들이 활약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신라 하대에 충지, 즉 다라니 및 진언의 전문가들이 대덕으로 선발되었다.⁵²⁾ 그러나 밀본, 명랑 등 중고기~중대의 밀교 세력에 비하면 신라말 그들의 세력은 왕경에서 부각되지 못하였다.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 왕실이 해인사로 대표되는 화엄교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왕거인이 다라니를 방편으로 왕실과 당대 불교계를 겨냥한 점은 왕건의 친밀교적 행적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우리 태조(왕건)가 창업할 때 역시 海賊이 와서 소란을 일으키니 安惠와 朗融의 후예인 廣學과 大緣 등 두 대덕을 청해 문두루법을 만들어 물리쳤는데, 모두 明朗의 傳係이다. 그러므로 법사(명랑)을 합하여 위로 龍樹에 이르기까지 九祖로 삼았다. 또 태조는 그들을 위해 現聖寺를 창건하여 一宗의 근거로 삼게 했다. …長興 2년 신묘(931)에 태조를 따라 상경해 여가를 따라다니며 焚修하니 그 노력에 상하여 두 사람 부모의 忌日寶에 돌백사 전답 약간을 주었다.⁵³⁾

왕건은 경순왕 5년(931) 신라의 왕경을 방문하면서 明朗의 후예인 신인종 승려들과 연결되었고, 이들은 왕건을 따라다니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출진 시 군사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후에도 고려에서 문두루법의 실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명랑 등 밀교의 승려들과 밀교의 의식이 삼국의 통일에 일조하였던 점과도 비교할 수 있다.⁵⁴⁾ 이렇게 본다면 왕거인의 사례는 후백제의 대야성 함락 후 대야성의 반신라적 기류를 강조하기 위해 채록되었고, 이후 왕건의 친밀교적 행적과 결부되며 신라말 다라니에 의한 시국 비판의 사례로 부각되었다고 생각된다.⁵⁵⁾ 이것이 고려 밀교의 정통을 세우고자 한 『삼

52) 박광연(2013), 197-198.

53) 『삼국유사』 권5 신주6 明朗神印.

54) 김연민(2017), 120-121.

국유사』 찬자에 의해 입전, 편제됨으로써 고려의 건국과 불교계 재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⁵⁶⁾

2. 고려초 왕실의 불교계 재편과 거타지 설화

거타지 설화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설화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의 왕거인 설화와 달리 시간적 배경을 진성여왕대로 규정한 것을 전거자료에서가 아닌, 일연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鶴島가 백령도로 불린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이므로 그 이전 시기로 설정되어야 하는데,⁵⁷⁾ 唐, 百濟 海賊의 등장을 근거로 진성여왕대 본 설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⁸⁾ 다만 鶴島는 물길이 험난하고 풍랑과 도적 때문에 왕래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鶴島라는 고구려 때 지명을 신라 하대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⁵⁹⁾ 신라 중양과 괴리된 궁벽한 지

55) 이와 함께 왕건과 해인사의 관계도 언급해두고자 한다. 『가야산해인사고적』에 따르면 왕건은 후백제의 군대와 합천 지역에서 전투를 치를 때 해인사 승군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은혜를 입은 왕건은 토지의 기진과 함께 해인사의 사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비용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다하였다고 하는데, 왕건과 해인사의 주지 希朗의 관계는 『均如傳』(권4 立義定宗分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왕거인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진성여왕대에 이미 왕실의 불교적 성향 및 정책에 대한 반발이 왕실사찰의 공간인 대야주에서부터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후 해인사의 친고려적 행적을 강조하고자 『삼국유사』의 찬자가 입전, 편제하였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56) 일연은 고려의 신인종과 충지종을 의식해 신라밀교로부터 이어진 고려밀교의 정통을 세우고자 의해편과는 별개로 신주편을 편성하였다.(김두진(2002))

57) 여성구(2016), 76-77.

58) 후백제가 서해상을 통항하던 선박들의 해상 교동을 위협하던 점에서 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을 진성여왕 6년(892)으로부터 얼마 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전기웅(2010), 236)

59)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鶴島는 지금의 백령진이다”; 『신

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거타지 설화와 같은 곡도 내의 사정이 부각되는 것은 진성여왕대보다 후대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곳을 포함한 서남해역 도서지방을 군사요충지로 주목하여 공취하고 鎭을 설치한 왕건의 활동시점이 참고 된다. 909년 왕건은 진도를 공취한 후 신안군 압해현 등 서남해역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서 지방에 존재하였을 직한 해상세력과 지역민의 실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례가 보여 주목된다.

진도를 함락하고 나아가서 皐夷島에 머무니, 성 안 사람들이 군대의 위용이 엄정한 것을 멀리서 보고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 그 때에 壓海縣의 賊帥 能昌이 海島에서 일어났는데 水戰을 잘하여 수달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망명한 이들을 모아 葛草島의 小賊들과 연결하여 태조가 오는 것을 기다려 해치려고 하였다. … 태조가 그를 잡아 궁에 예게 보냈더니 궁예가 크게 기뻐하였다.⁶⁰⁾

이에 따르면 皐夷島에 거주하던 현지인들은 왕건이 거느리고 온 수군에게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고 하여 당시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성을 매개로 지배적인 위치에 존재하던 해상세력과 이들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던 지역민들이 공존하던 실상을 보여준다.⁶¹⁾ 압해현의 賊帥로 불릴 만큼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도서지방의 사정과 함께 반신라적 분위기를 간취할 수 있었다.

곡도 역시 양패 일행의 항로로 이용될 만큼 중국과의 교류활동에서 중요한 창구이자 길목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왕건뿐만 아니라 후백제 역시 이 지역의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⁶²⁾ 실상 진성여왕대부터 대략 40여년이 지난 뒤 庾黔弼이 백

증동국여지승람』 권43 황해도 康翎縣 건치연혁, “백령도는 본래 고구려의 곡도로서 고려 때는 백령진이라 했다”.

6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양 개평 3년.

61) 신성재(2016), 9-10.

령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은⁶³⁾ 고려가 이미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이 섬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⁶⁴⁾

이러한 과정에서 곡도의 사정이 채록되고 왕건(고려)의 입장에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거타지에 의한 승려의 처단이라는 부분은 고려 건국 후 불교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던 왕건에게 불교통제에 대한 지향점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왕건의 불교적 지향점은 고려의 건국이념으로서, 「훈요 10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의 호위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교종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기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라. 그런데 후세에 간사한 신하가 정권을 잡아 승려들의 청탁을 따르게 되면 각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사원은 모두 道誥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國王, 公侯, 后妃, 朝臣들이 각기 願堂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한다면 크게 근심이 될 것이다.⁶⁵⁾

이밖에 「훈요 10조」에는 대외관계 및 유학과 관련된 항목도 보이지만, 건국이념으로서의 불교를 1조에 둔 점과 그에 이어 사찰 창건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점은 왕건의 고려 건국을 전후하여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불교계 재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

62) 거타지를 민중의 영웅으로서 견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보았다.(박철완(1988), 255-259)

63)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64) 신성재(2016), 17-18.

6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히 제도적으로 전국의 사찰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던 시기의 지방통제 일환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의 목표는 불교를 통해 민심을 회유하며, 사원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승과시험을 국가 차원에서 치르고 2년에 한 번씩 당선법회를 여는 등⁶⁶⁾ 태조 때 행해진 불교 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⁷⁾

이렇듯 국가에 의한 불교계 통제를 지향한 왕건에게 승려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처단한 거타지 설화의 내용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에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작제건 설화로 윤색,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⁶⁸⁾

作帝建이 활과 화살을 잡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아래에 암석이 있어 그 위에 섰더니 안개가 개이고 바람이 좋아 배가 나는 듯이 떠났다. 잠시 후 한 늙은이가 나타나 질하며 말하길, “나는 西海龍王입니다. 매번 해가 질 때 늙은 여우가 熾盛光如來像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운무 사이로 日月星辰을 나열하고는 법라를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며 와서 바위에 앉아 『臙腫經』을 읽으면 곧 내 머리가 매우 아픕니다. 郎君이 활을 잘 쏜다고 들었으니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니, 작제건이 허락하였다. 때가 되자 공중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북쪽에서 누가 오고 있었다. 작제건이 진짜 부처가 아닌가 의심되어 감히 활을 쏘지 못하자 늙은이가 와서 말하길, “바로 그 늙은 여우입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작제건이 활에 화살을 먹이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쏘아 떨어트리니 과연 늙은 여우였다.⁶⁹⁾

66) 이규보, 「龍潭寺叢林會榜」(『동국이상국집』 25); 「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67) 이정신(2002), 46-49. 「정토사법경대사자등담비」에서도 “上答曰 法由國興 誠不虛言 實願大師安心道念 久護生靈 弟子牆塹法城金湯祇樹”라고 하여 태조는 불법이 나라의 발전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불교보다 국가를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인표(1996), 157.

68) 박한설(1977), 105-106.

69) 『고려사』 高麗世系.

작제건 설화는 거타지가 작제건으로, 사미가 치성광여래로, 다라니는 『臃腫經』으로 윤색되었는데, 치성광여래가 밀교의 부처라는 점에서 밀교적 색채로 윤색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⁷⁰⁾ 여기서는 부정한 주체가 부처로까지 표현된다는 점과 그를 처단하는 주체가 역시 작제건이라는 俗人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치성광여래는 거타지 설화에서와 같이 늙은 여우의 둔갑이라는 설정이 있지만 스님의 형상, 나아가 부처의 형상을 한 존재를 죽이는 행위는 부처가 아닌가 의심되어 활을 쏘지 못하니 늙은이가 의심하지 말라고 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교단 간의 합의와 정당성의 부여가 명백히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배경에 신라말 거타지 설화를 통한 속권의 우위 사례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도승격 및 승니령에는 승니에 대한 국가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례로 국가로서는 승려들로 하여금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사항을 타국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도승격에서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법률에 따라 官司에 보내 科罪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승니령에서도 법률에 의해 관사에서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唐律疏議』 권18에 의하면 妖書妖言者是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⁷¹⁾

고려에서도 승려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律이나 令이 있었다고 파악된다. 앞서 살펴본 「훈요 10조」에서도 사원과 주지직 쟁탈을 금해야 한다는 규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려사』 형법지 금령에서 발견된다. 복원된 바에 따르면 승니령은 60조로 정리되는데, 국가의 부역 노동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많아 다소 자세한 것이 많고 사원에 대한 중앙 통제가 법적 보호 하에 있었음이 확인된다.⁷²⁾ 신라에 비해 고려 불교계는

70) 김연민(2017), 116-117. 나아가 치성광여래는 궁예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다.

71) 김영미(2002), 10-11.

국가 예측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왕건이 도서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곡도를 배경으로 한 거타지 설화가 채록되었고, 고려 초 교단의 국가 예측성 및 속권 우위적 태도를 가지고 불교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작제건 설화로 재탄생하게 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IV. 맺음말

신라 진성여왕대 정치, 사회적 혼란상에 대한 사료는 비교적 다수 남아 있다. 그 중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당대 불교계와 나아가 나말여초 불교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조목을 구성하고 있는 왕거인, 거타지 설화를 통해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왕경 및 지방 불교계의 양상과 왕실 및 교단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과 본 조목을 비교하여 왕거인이 시정에 대한 비판의 방편으로 다라니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그 발신 장소는 대야주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가 진성여왕의 불교적 공간인 대야주에서 다라니를 이용하여 왕실에 반발하였던 점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 당대 왕실, 나아가 왕실과 결탁한 불교 세력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였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 연구에서 그를 왕경인으로 파악한 시각은 재고를 요한다. 그의 소재를 대야주라고 밝힘으로써 그는 왕경인으로서가 아닌, 진성여왕대 지방민들의 왕실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화는 해인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진성여왕대를 전후

한 시기에는 채록,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후백제가 이 지역을 함락한 후 이 지역의 반신라적 기류를 부각하기 위해 채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왕건의 친밀교적 행적과 결부되면서 신라말, 다라니에 의한 시국 비판의 사례로 부각될 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거타지 설화의 경우는 그간의 연구에서 거타지를 지방세력으로 보는 시각에 의문을 가지고 그가 친왕실적 성격을 가진 양패의 무리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이후의 행동이 왕실의 의도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가 사미를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속권에 의한 교권 규제의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신라 중고기, 중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부정한 사문에 대한 대응의 주체가 중고기에는 교권, 하대에는 속권이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설화 역시 곡도라는 공간적 배경이 진성여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궁벽하여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인 만큼 설화의 채록시기는 후대로 생각되었다. 이에 왕건이 서남해 지역을 비롯하여 도서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거타지 설화가 채록될 수 있었고, 설화의 내용 중 속권에 의한 사문의 처단 내용은 고려 초 교단의 국가 예측성 및 속권 우위적 태도를 가지고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한 왕건의 의도에 부합되어 한층 부각되고 이후 작제건 설화로 재탄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듯 두 설화가 진성여왕대의 주요 사건으로서 『삼국유사』에 편제된 이면에는 고려 건국과 불교계의 국가 예측성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하고자 한 찬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紀』, 『高麗史』, 『均如傳』,
『東國李相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 곽승훈(2005),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권영오(2004),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운영」, 『대구사학』 76.
권영오(2016), 「신라 말 해인사와 주변 지역 정세」, 『한국고대사연구』
82.
김두진(2002), 「삼국유사의 불교사 자료와 그 성격」, 『청계사학』
16 · 17.
김두진(2008), 「궁예의 토착 불교사상」, 『한국학논총』 30.
김복순(1983),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김상현(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고회기념 학술논총』,
불교시대사.
김상현(2006),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신라문화』 28.
김수연(2012), 「고려시대 밀교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연민(2017), 「신라 밀교사상사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미(2002), 「고려시대 불교계 통제와 울릉-승려행동 규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67.
김영태(1974), 「삼국유사의 체재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 13.
김영태(1987), 『신라문화연구』, 민족문화사.
김주성(2010),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 34.
김창겸(2003), 『신라 하대 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
남희숙(2002), 「조선후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불서간행」,

『국사관논총』 99.

- 박광연(2013), 『신라 법화사상사 연구』, 혜안.
- 박미선(2016), 「일연의 국왕관」, 『한국사학사학보』 33.
- 박유미(2012), 「〈진성여대왕거타지〉 설화에 나타난 사회구조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1.
- 박철완(1988), 「거타지설화의 상징성 고찰」, 『청람어문학』 1.
- 박한설(1977), 「고려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총』 21 · 22.
- 柳珥善(1981), 「심청전의 근원설화와 배경사상」, 『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 11.
- 송화섭(2007),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역사민속학』 25.
- 신동익(1984), 「거타지설화소고; 용구출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26.
- 신선혜(2005), 「6-7세기 신라 불교계의 동향과 승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혜(2017a), 「『삼국유사』 기이편 「처용랑 망해사」조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 신선혜(2017b), 「『삼국유사』의 불교금석문 인용사례와 인용방식」, 『한국사학보』 69.
- 신성재(2016), 「나말여초 백령도와 유금필의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6.
- 申蓮雨(1998), 「삼국유사 거타지 설화의 신화적 속성」,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48.
- 辛鍾遠(1982), 「고성군지역 향토문화 조사보고-역사부분-」, 『강원문화연구』 2.
- 여성구(2015), 「신라 효소왕대의 삼국유사 기록 검토」, 『한국학논총』 44.
- 여성구(2016), 「삼국유사 鵠島 居陁知 설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試論」, 『한국학논총』 4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 이정신(2002),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 118.
- 장덕순(1983), 「심청전연구」,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 장덕순(1984), 「용전설과 <용가>의 용」,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 장일규(2004), 「최치원의 귀국 후 활동과 은둔」, 『사학연구』 76.
- 장충식 외(1993), 『해인사』, 대원사.
- 전기웅(1996),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혜안.
- 전기웅(2010),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 조인성(2002), 「후삼국의 정립」, 『신편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 최운식(1985), 『심청전 연구』, 집문당.
- 최인표(1996), 「신라말 고려초 선종불교 통제-행정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Abstract

New Analysis of 『Samguk Yusa(三國遺事)』 「Queen Jinseong Geotaji(眞聖女大王 居陔知)」 Writings

Sin, Sun Hye

Korea Univ.

『Samguk Yusa(三國遺事)』 「Queen Jinseong Geotaji(眞聖女大王 居陔知)」 Writings are consisted of tale of Wanggeoin(王居仁) and tale of Geotaji(居陔知). Since there were a lot of fantasy aspects in both of the cases, the early research was mainly made in the Korean literature perspective, but it was also researched historically as complementary data for the social aspect of Queen Jinseong. However, because the previous researches viewed Wanggeoin and Geotaji each as high-class and low-class, it viewed this writing as the opposition against the Queen Jinseong realm. Especially for Geotaji, it was identified as the traditional Buddhist power contrary to the spoiled Buddhism, but it showed limitation in that Wanggeoin was viewed disorderly as a hiding person of 'Daeyaju (大耶州)' in 『Samguk sagi(三國史記)』 and Geotaji was viewed as 'Yangpae(良貝)'s group' representing the king's realm. Therefore, the Wanggeoin tale is an opposition against the Queen Jinseong realm's Buddhistic approach by the 'Daeyaju' people, and the Geotaji tale is about the punishment of the corrupted monk in order to justify the involvement of secular arm against the corruption in the Buddhism religion. On the other hand, it is estimated that the recording period of these two tales should be after the time of Queen Jinseong since it intends for the opposition against the queen's realm. So the time for the Wanggeoin tale is after the invasion of HuBaekjae(後百濟), and the time for the Geotaji tale is

during the restructuring of Buddhism of King Wanggeon(王建). With this, the reason for the inclusion of the two tales in 『Samguk Yusa』 is to show the continuation of Silla(新羅) Buddhism to Goryeo(高麗), and the restructuring of Goryeo Buddhism. Therefore, we must approach this writing with the time period of late Silla and early Goryeo, and with the view that i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dhism religion and the country.

Key Words :

Wangeoin, Geotaji, Queen Jinseong, Monk regulation, HuBaekjae, samgukyusa, Wanggeon